

과거에서 찾은 '나'

Team. 테이북

꿈이었다. 오늘로 세번째이다. 답답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작은 신음과 함께 잠에서 깨어난다. 내 안에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물체가 점점 더 형체화 되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답답함에 날이 갈수록 일상을 보내는 것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답답함에 적응을 하면 되겠지' 라고 내 자신에게 최면을 걸며 다시금 이불안으로 들어간다.

다음 날 나는 답답한 마음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며 회사로 향한다. 머리에 얹힌 낙엽을 신경질적으로 털어내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익숙한 작품이 눈에 띈다. 클로드 모네의 <아르장퇴유의 가을> 이다.

저기 멀찍히 떨어져 있던 미술관에서 모네 전시회를 한다는 거대한 현수막을 내걸은 것이다. <아르장퇴유의 가을>에 눈을 떼지 못하고 시선을 고정한 채 걷고 있던 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무언가가 반응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무언가 꿈틀거린다. 뭔가를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조차 힘들어서, 그런 느낌들이 나를 좀먹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미술관으로 옮긴다..

빛과 색채의 연작을 감상하던 그 순간. 내 마음에 들어온 물 위로 까슬하게 늘어져 있는 수련의 모습은 생경하면서도 슬펐고, 아름다웠으며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다. 바로 나의 작은 변화들에 대한 것이었다. 그 시절에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기억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만나게 되곤 한다. 그리고 그때를 떠올리면, 참 많은 추억들이 있다.

그건 아주 오래 전의 일이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10대 때 봤던 '평범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우리 집은 가난하지 않고, 평범하고, 소박하며, 행복했다. 내가 꿈꾸는 삶. 나의 평범한 일상이자 나만의 이야기였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과 밤 늦게까지 놀며 수다를 떨었다.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친구, 그리고 웃어주는 친구가 너무도 좋았다. "너희들 덕분에 나도 나를 잘 살고 있다." 하며 스스로 만족해 했다. 일상같은 일상,

평범함으로 물든 나날. 매일이 매일 같았지만 그렇게 노는 것도 즐거웠다. 나의 삶은 늘 그랬듯 평범하고 행복하게 흘러간 것이었다. 남들과 같은 하루들을 보내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에 나를 끼워 맞추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몰랐다.

지금껏 해 왔던 것처럼 평범하게 살던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변화는 낯설지 않았다. 사실 정말 평범했던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평범하다'는 기준점이 어디였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그저 그럭저럭 균형을 맞춰가며 살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나의 평범한 일상은 전혀 만족스럽지 못했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나서 후회된다'라고 느낀 적도 있었는데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왔던 나에게 어느덧 낯선 사람이 생겼고, 그런 타인을 보며 난 그 세상이 참 궁금했다.

어느 가을이었다. 당시 미술관은 나에게 따분한 장소이자, 관심이 가지 않는 장소였다. 따분한 장소였지만 부모님 손에 이끌려 우연찮게 들리게 되었고, 그 와중에 만난 작품들은 흥미로웠다. 빛과 색채의 향연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었는데 정말 신비롭고 환상적인 작품들을 만났다. 정말 빛이 너무도 반짝이는 작품이었다. 이 작품을 보고 있으니 마음 한편이 절로 편안해진 것이 분명했다. 따스한 햇살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순간은 정말 멋졌다.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다. 나는 '내게 집중된'의 느낌을 받았다. 나도 모르게 나와 눈이 마주치는 것 같았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예술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는 지금껏 내가 봤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나의 성격 때문이었을까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 안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는 정말 다양한 그림을 감상했다. “아, 정말 신기하다” “진짜 대단하구나”. 그림에 감동을 받아 직접 큐레이팅을 하고 있는 듯 했다. 미술관에서 설명하는 작품 설명에 감동받으면서 말이다. 그 모습이 꽤 낯설었다.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적응도 잠시. 그는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모네의 <아르장퇴유의 가을> 을 제일 마음에 들어했다. 작은 마을을 휘감고 도는 센 강변의 가을 여정에 함께 참여하는 느낌이 들어서란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그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문제들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된 것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져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당시에 나는 어떤 느낌의 변화가 있을지 몰랐고, 그저 내 감정을 어렴풋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몇 년이 흘렀지만, 그때는 전혀 잊히지 않는다. 내가 이 세상의 전부라는 사실 앞에 서게 된 것은 어쩌면 그 때문이 아닐까... 처음에는 그냥 좋다 싫다를 뭐라 하기엔 애매했다. 왠지 모르게 설렘이 느껴졌다. 그런데 몇 시간 후 한 번씩 계속 얘기를 나누다보니,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또 다양한 질문을 하며 친구가 되었다. 나도 모르게 욕도 하고 깔깔거리기까지 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만의 공간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기도 했다.

그 후 우리는 함께 여러장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때로는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의 나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어느덧,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고, 그 순간 머릿속에는 내 인생이 그려졌다.

미술은 내 안에 있는 열정의 불씨를 일으켜 주었다. 나는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을 완성해나갔다. 새로운 인생을 열렬히 꿈꿨고 이는 나의 삶을 바꾸는 계기였다. 내 인생의 변곡점에 가깝지 않나 싶었다. 그가 그린 그림처럼 세상을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갔고, 정해진 코스 외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고래섬을 구경하며 바닷 바람과 맞부딪치는 물고기들을 만나거나, 혹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불가사의한 바다를 함께 항해하였다. 하늘의 일부가 된 나뭇잎, 예쁜 꽃들을 보며 내 마음 속에 미소가 번졌다. 그렇게 나의 성격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차차 바뀌어갔다.

그는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고 공감했으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나에게 꿈을 찾아준 이였다.. 나에게 처음 다가오는 새로운 일상을 같이 하게 되었고, 덕분에 꽤 많은 것을 경험했다. 내 감정을 주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나는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고, 그제야 비로소 내가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 더 이상 하나의 감정이 아닌 진심으로 다가왔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그 속에서 나는 내가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건,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저 평범함으로 인해 같은 순간을 맞이하려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든 순간부터, 내 삶이 시작되었다.

그에게 다가가는 시간은 무척 즐거웠다.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은 이채로운 감정이 되었다. 나는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을 완성해나갔다. 그는 커다란 그림자들을 보면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공유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우리들 각자의 삶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노력하여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가 가진 특유의 지적이고 강렬한 메시지를 나는 공감했다.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을 해왔고 뭔가 제대로 해 낸 것 같은 기분은 들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새로운 도전은 재미있었고 계속 될듯하여 가슴이 두근거렸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진심으로 예술가가 되고 싶었다. 우리의 학교생활은 너무나 단순했고 아무것도 배우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압박감을 느꼈다.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는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꼈다. 그때의 나는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보냈고, '아, 나도 화가 될 운명 같구나' 하고 감탄을 연발했다. 나의 열정은 대단했고, 소중했으며, 사랑스러울 만큼 아름다웠던 것 같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도 있었다. 그렇기에 새롭고 이상한 것, 신선해야 하는 것들을 나는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시작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고, 더 나아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할 것인 지 고민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떤 방향을 잡아나갈지 구상해보기 시작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했고 또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싸워야했다. 나도 나를 알기 위한 공부를 해야 했다.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나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고민으로 시작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뿌리를 내렸고, 그러다 문득, 나의 생각이 이상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과연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을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도 있었고, 새로운 일을 찾았을 때 더욱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변화 앞에 선 나는 변화를 원했다. 이내 생각해 보면 난 무언가에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꿈이 다른 무엇으로도 바뀔 수 없는, 그야말로 내가 원하는 삶이었다. 난 더 이상 새로운 생각의 흐름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와 함께했던 공간 속 추억의 파편들이 눈에 띄었다. 지나간 시간의 여백 때문에 더욱 선명하게 느껴진다. 어린 시절의 우울함의 발원지이며, 어른의 감정의 발로의 근원지라 생각한 그 생각을 따라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지금의 난, 그때의 상황을 기억한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고, 아프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린다. 다시 마주할 때면 가슴 속에 자리한 아픔도 꺼내놓겠지. 나에게는 한없이 작고 어렸던 감정. 그 감정의 파편이 거기 있었다. 그 감정은 마치 여름을 지나 가을이 오듯, 우리의 변화도 어느새 사계절을 거치듯 서서히 우리 앞에 도래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를 위로하는 것조차 힘들어서 마음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저 모른 척 하고 넘어가버리기엔 너무도 날카롭다. 가슴 한구석에 상처가 늘었고, 내 감정과 마주할 때마다 이는 심해졌다. 그 속에서 많은 경험을 잃었고, 교류를 할 수 없을 때도 많이 생겨났다. 그렇게 연약한 감정이 물렁하게 가라앉았다. 가슴이 움찔거렸고 눈물이 흘러 내렸다. 그리움에 목이 막히고 울적해졌다. 이는 일종의 착각에 인한 것이라고 해도 될 듯싶지만,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다. 내 안의 나는 내가 아닌 것 같아 뭔지를 모르는 것이다. 현재의 나는 이유를 전혀 모른채 그저 조용히, 아주 천천히 감내해야 하는 기억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이 길은 나에게겐 어쩐지 더 힘들어졌다. 내 성장기에 찾아온 결핍, 어쩌면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림을 그리며 많은 것들을 희생했어도 그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겠지하고 끝끝내 버텼다. 하지만 어느새 그려야 할 그림은 점점 커져갔고 내가 그릴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커져가는 그림 속에 나는 내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평범'이나 '나'라는 존재에 대해 꽤나 깊이 생각해보게 됐다. 현실은 너무 뜨거워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의 나는 점점 지쳐갔다. 조금씩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툼에 신경을 집중해야 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불안감에 휩싸였다.

결국 나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였다. 주변 사람들은 나의 다름을 손가락질했다. 내 마음은 계속해서 혼란스러웠고 답답했고 짜증이 났었고 두통도 자주 났었다. 어느새 손이 바들거리고 몸이 아파왔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는 나를 포함한 수많은 이들이 나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사람들 사이에서 내 삶은 여전히 실패의 연속이라고 여지없이 기록되고 있었다. 그 시절에는 항상 그랬으니까.

서로는 서로를 이해하려 했지만 이내 서운한 감정싸움을 시작하게 되었고, 왁자지껄 떠들썩했던 분위기는 한순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서로의 마음은 이미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서로를 마주 볼 수조차 없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며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변화가 버겁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나는 내게 주어진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변화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결국 안주하기를 선택하였다. 내 마음의 여유는 처음과는 달랐고, 결과물은 쉽게 바뀌지를 않는 법이었다. 그렇기에 나는 변화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여전히 어설피게만 생각했던 나의 삶의 태도가 사실은 모두 틀린 것들이었음을 인정했을 때쯤, 난 비로소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안도감을 느꼈고 행복했다. 무심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평범함'이 정말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서 살아가면 되고 더 이상 나만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에... 그 속에서 나는 나를 마주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었고, 또 애쓸 필요 없었다. 나는 그걸 통해 나의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라도 삶을 살고 싶었다. '우리'는 이제 없었다.

그렇게 새로운 추억에 빠진 나는 시간이 흐르며 점점 과거의 내 모습이 조금은 밍지만 그렇다고 아주 싫다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평범하게 대학을 가게 되었고 나름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다. 나의 삶을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하였고 나름대로의 만족하며 일상을 보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던 나에게 지금의 나는 너무나 평범했다.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나를. 어쩌면 난 그 자체로도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또 나의 경험을 통해 내가 살아온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을지도 모른다. 나의 '평범함'은 그저 하나의 삶이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인정받는, 지극히 이기적인 내 삶의 모습. 그렇게 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다. 그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한순간에 바뀔 것이 아닌 마치 그것이 행복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내가 어른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혼자 남게 된 나의 생활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겪어야 했던 것 같다. 내가 원하는 바는 정말 무엇인가, 하고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봤다. 그저 내 머릿속에 그렇게 그려 놓은 질문들에 답은 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하기만 했던 그 시간은 나에게 많은 것들을 바꿔게 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잊어왔었다. 여전히 이런 상상은 한다. 다시 돌아갈 수 없겠지만 만약 그럴 수도 있다면, 그러기 위해선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저 잠시 길을 잃은 기분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조금은 멍한 상태로 머물렀다. 시간이 지나고 나라는 사람은 많이 변해 있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맞춰 사는 것.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옳은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삶에 익숙해져가며 나도 서서히 나이를 먹어가기로 결론을 낸 것일까. 난 정말 '평범하게 사는 거,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만족했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다. '평범함'에 대해서. 평범함은 나에게서 일종의 타협이 아닐까. 무언가를 좋아하고 과거와 같이 살아가고 싶을까. 또한 이제야 알았다. 평범한 삶의 기준에 의문을 가진 나를 보며 나는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타협은 내 삶의 방식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고민하고 고된 삶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나를 돌아보고,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다. 그 때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을 마주할 때 비로소 의미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도전할 준비를 한다. 내게는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다.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쩌면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끝내 가지지 못했던 나의 인생을 찾을 수 있을까? 나의 회고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평범한 삶을 끝낼 것이다. 이번에는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의 꿈에 끝까지 부딪혀보겠다고 그런 담대한 생각을 한다. 다시 한번 난 이 틀을 벗어나려 하는 것이다.